2026-3분기

평창인스타

평창군시설관리공단 ESG 소식지

[평창인스타]는 평창의 별이라는
뜻으로,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의
분기별 소식지입니다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2026-3분기 소식지
www.pcfmc.or.kr
평창읍 종부로 69-27

목차

조화로운, 공단소식

E | Environmental

03 · 탄소중립을 위한 디지털 단소발자국 줄이기
04 · 상리교 일원 환경정화 봉사활동
05 · 관광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자원 활용 화분 배치
06 · 2026년 상반기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최
07 · 평창종합운동장 관람석 복원사업

S | Social

08 · 제4기 서비스 모니터링단 2차 회의 및 신규시설 현장 모니터링
09 · 고객 인권보호를 위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10 · 평창자연휴양림 노후 데크 자체수선
11 · 추석 명절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12 · 2026 메밀로드마켓 연계 전통시장 활성화 부스 운영
13 ·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수해 피해농가 지원
14 · 취약계층 노후 보일러 무상 교체 지원사업
15 · 태백시시설관리공단과 함께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16 · 평창청성골프연습장 방림초등학교 골프교실
17 · 「NO Weak Challenge」 청소년 마약 예방 및 범죄예방 캠페인
19 · 평창형 금요시간적금제 시범운영
20 · 거제시 집중호우 피해복구 자원봉사

G | Governance

21 · 2026 평창군 스마트 청렴 골든벨 참여
22 · 시설물관리 통합정비반 운영

반짝이는, 시설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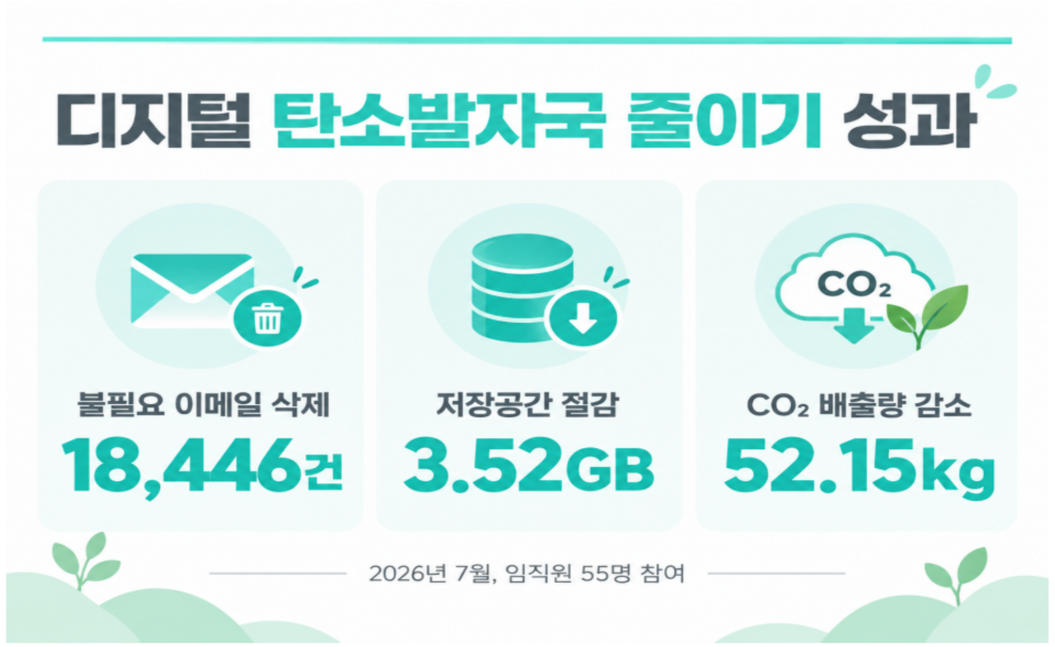
23 · 이용객을 위한 작은 변화, 더 나은 시설
25 · 계방산오토캠핑장,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6년 연속 우수분야 선정
26 · 2026 평창치유의숲 달빛 축제

탄소중립을 위한 디지털 탄소발자국 줄이기

공단은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 문화를 확산하고자 2026년 7월 한 달간 '디지털 탄소발자국 줄이기'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활동에는 공단 임직원 55명이 참여해 업무용 이메일함에 장기간 보관되어 있던 불필요한 메일을 정리하며 디지털 환경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탄소저감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활동 결과 총 18,446건의 불필요한 이메일을 삭제해 약 3.52GB의 저장공간을 절감했으며, 이를 통해 약 52.15kg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평소 무심코 쌓아두었던 이메일과 디지털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사용과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직원들이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임직원이 업무와 일상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작은 행동이 조직 전체의 친환경 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ESG 기반의 탄소저감 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리교 일원 환경정화 봉사활동



2026년 8월 14일 '2026 메밀로드마켓' 행사와 연계해 평창읍 상리교 일원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메밀로드마켓 기간 중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동선을 중심으로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공단 임직원 14명이 참여해 상리교 일원과 행사장 주변의 생활쓰레기와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고,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보다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특히 지역행사와 환경정화 활동을 연계해 관광 활성화와 환경보전을 함께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평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관광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자원 활용 화분 배치

평창읍으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화분을 활용해 공단 관광시설 경관을 개선하는 환경정비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별도의 신규 구매 없이 기존 자원을 활용해 쾌적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예산 절감과 자원순환을 함께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단은 평창 치유의 숲, 평창목재문화체험장, 평창에코랜드, 평창강물환경체험센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등 주요 관광시설에 총 184주의 화분을 배치했습니다. 시설별 특성과 주변 경관을 고려해 화분을 배치함으로써 방문객에게 보다 쾌적하고 정돈된 환경을 제공하고, 시설의 미관 개선 효과도 높였습니다.

이번 활동은 무상 제공 자원을 적극 활용해 예산 효율성과 친환경 가치를 함께 높인 사례로, 자원의 재사용과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ESG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2026년 상반기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최



2026년 7월 8일 공단 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과 위원, 간사 등 총 6명이 참석해 시설별 전력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공단의 에너지 절감 실천사항과 향후 관리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2025~2026년 시설별 상반기 전기 사용량을 비교·분석하고, 각 시설에서 추진한 에너지 절감 노력과 에너지 지킴이 활동 결과를 점검했습니다. 주요 실천사항으로는 냉·난방 적정온도 유지, 미사용 조명 소등, 자연채광 활용, 전력 피크시간대 순차적 절전 등 일상적인 에너지 절약 활동의 이행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시설별 운영 특성과 따라 일률적인 절감이 아닌 시설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유하며 직원들이 업무 중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절전 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시설별 에너지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전력 사용량 점검을 넘어, 각 부서와 시설이 함께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생활 속 절전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창종합운동장 관람석 복원사업

제34회 강원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앞두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화로 색이 바래고 변색된 평창종합운동장 야외 관람석을 개선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좌석을 전면 교체하는 대신 LP가스 토치를 활용해 좌석의 원색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예산 절감과 자원순환을 함께 실현했습니다.

퇴색과 변색이 심한 관람석 364석을 선정해 플라스틱 표면의 산화층을 열처리하며 공단 직원이 직접 시공해 약 2,544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기존 좌석을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하면서 약 0.9톤의 폐플라스틱의 발생을 줄이고, 신규 좌석 생산에 소요될 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도 함께 줄였습니다.

개선된 관람환경은 도민생활체전 개·폐회식장으로 활용된 평창종합운동장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으며, 이번 사업은 시설 개선과 예산 절감은 물론 자원 절약과 탄소저감까지 함께 이뤄낸 친환경 시설관리 사례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제4기 서비스 모니터링단 2차 회의 및 신규시설 현장 모니터링

2026년 8월 13일 평창강물환경체험센터에서 제4기 서비스 모니터링단 2차 회의와 신규 운영시설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시설을 소개하고, 상반기 활동보고서에 제시된 의견의 조치 결과와 향후 개선계획을 공유하며 이용객 눈높이에서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상반기 모니터링단 활동보고서를 통해 총 14건의 개선사항을 도출했으며, 이 가운데 13건이 조치완료 또는 추진 중으로 92.9%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회의 후에는 위원 6명이 7월 신규 수탁한 평창에코랜드와 평창강물환경체험센터를 직접 방문해 시설물 관리상태와 안내체계, 청결·안전관리, 이용 편의성 등을 점검했습니다. 현장 의견 분석 결과, 우선 개선과제로 홍보 강화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콘텐츠·프로그램 다양화와 편의시설 확충 등의 의견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의견의 조치 결과를 다시 공유하고 신규시설까지 직접 점검하는 환류형 고객참여 활동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모니터링단 의견은 시설 운영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해 이용객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고객 인권보호를 위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이용객과 근로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단 운영시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공중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 등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취약공간을 중심으로 안전한 시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점검은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1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공단 운영시설 1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용객의 사생활 보호가 특히 중요한 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 이용객의 사생활 보호가 특히 중요한 공간을 중점적으로 살피며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와 시설 내 위험요인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시설 안전관리를 넘어, 고객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범죄예방의 관점에서 시설환경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공단의 인권경영 추진과 연계해 이용객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사생활 보호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공단은 시설을 이용하는 누구나 불안 없이 머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선제적으로 점검하며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공시설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평창자연휴양림 노후 데크 자체수선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창자연휴양림 내 노후 데크 수선에 나섰습니다. 이번 수선은 공단 통합정비반과 휴양림 직원들이 직접 진행해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했으며, 외부 기술 노무비와 업체 유통마진을 절감해 예산 효율성도 함께 높였습니다.

이용객이 자주 통행하는 계곡부 데크 다리의 일부 상판 파손 구간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성수기 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조치가 아닌 예방 중심의 시설관리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자체 인력을 활용해 시설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필요한 구간을 즉시 보수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시설관리 역량과 대응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번 수선은 작은 위험요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 실질적인 시설관리 사례입니다.

추석 명절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과 관광객의 시설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공단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화재·전기·기계·구조물 등 분야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해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점검은 2026년 9월 7일부터 11일까지 공단 관리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전수점검과 현장 지도점검을 병행했습니다. 특히 내부 전문인력뿐 아니라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안전관리자와 외부 산업보건 전문지도자가 함께 참여해 점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안전표지를 부착하거나 자체 정비를 실시했으며, 추가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통합정비반을 활용해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휴기간에도 중단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시설 이용환경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 점검은 명절 전 일회성 확인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점검과 교차점검, 외부 전문가 참여를 결합한 다각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시설의 잠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살핀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이용객이 안심하고 공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예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026 메밀로드마켓 연계 전통시장 활성화 부스 운영



2026년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창전통시장 내에서 '2026 메밀로드마켓' 연계 체험형 홍보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약 2,500명이 찾은 행사 기간 중 관광객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유도하고, 공단 관광시설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루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부스에서는 공단 관광시설 안내와 함께 소원박쥐·솔방울 박쥐 만들기 체험, 시그니처 기념품 판매, 광천선굴 AI 홍보영상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시설에서 수집한 솔방울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체험을 통해 친환경 요소를 더하고, 관광시설 리플렛과 전통시장 정보를 함께 제공해 관광과 지역상권을 자연스럽게 연결했습니다.

3일간 부스에는 약 256명이 방문했고, 체험 프로그램에는 약 108명이 참여했습니다. 현장 만족도 조사에서는 종합평균 4.91점, 유사 행사 재방문 의향은 100%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94%가 부스 방문이 전통시장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평창관광문화재단 SNS 서포터즈와 연계해 광천선굴-평창전통시장-치유의숲을 하나의 여행코스로 소개해 관광시설과 전통시장 홍보의 시너지를 높이며 지역경제 선순환형 홍보 사례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수해 피해농가 지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2026년 7월 14일 평창읍 후평리 일원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활동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공단 임직원 18명이 참여해 2시간 30분 동안 피해농가의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현장에서는 집중호우로 농경지 제방과 논두렁 일부가 유실되고 토사가 유입된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토사정리, 마대 적치, 흙 되메우기, 제방 응급복구 등을 진행했습니다. 피해농가가 하루빨리 영농환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에 맞춘 실질적인 복구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한 일손 지원을 넘어, 재난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상생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내 재난 발생 시 공공기관이 신속하게 현장 지원에 나서며 주민의 일상과 생업 회복을 돕는 든든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됐습니다.

취약계층 노후 보일러 무상 교체 지원 사업



지역 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난방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보일러 무상 교체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평창군 복지정책과와 협력해 지원 대상자를 추천받고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지원가구를 선정했으며, 가구별 난방 여건과 기존 보일러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장실사 결과 최종 5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연탄·기름보일러 등의 노후 정도와 주거환경을 고려해 필요한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특히 일부 가구는 기존 난방방식의 사용이 어려운 점을 반영해 보다 안정적인 난방이 가능하도록 교체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은 공단 단독 지원에 그치지 않고 평창군 복지정책과, 한국열관리협회 평창지회와 협력해 추진한 민·관 협력형 사회공헌활동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대상자 추천과 자격 확인을, 공단은 사업 추진과 지원을, 한국열관리협회 평창지회는 보일러 설치를 맡아 각 기관의 역할을 연계했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노후 난방시설로 인한 겨울철 생활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고,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태백시시설관리공단과 함께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태백시시설관리공단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를 추진했습니다. 지방공기업 간 상호기부는 3년 연속, 태백시시설관리공단과는 2년 연속 이어오며 지역 간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상호기부에는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임직원 39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태백시에 285만 원을 기부했으며, 태백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평창군에 333만 원을 기부해 총 618만 원 규모의 상호기부가 이뤄졌습니다.

9월 18일 태백시시설관리공단에서 지역상생 간담회와 상호기부 기탁식을 개최하며 양 기관은 그간의 상호기부 성과를 공유하고, 평창과 태백이 함께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번 상호기부가 두 지역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작은 활력이 되고, 평창과 태백이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상생협력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평창청성골프연습장 방림초등학교 골프교실

지역 학생들의 스포츠 체험 기회를 넓히고 공공체육시설의 공익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방림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골프교실을 운영했습니다. 2026년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평창청성골프연습장을 활용해 학생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골프를 접하고 생활체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골프교실에는 골프연습장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고 연습용 골프공을 무상 지원해 학생들이 별도의 시설 이용 부담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와 공단이 협력해 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을 교육과 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평소 접하기 어려운 종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스포츠에 대한 흥미와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 공공시설이 주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지역 학교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NO Weak Challenge」 청소년 마약 예방 캠페인



「NO Weak Challenge」 에서 현장 캠페인까지

청소년 마약 예방과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릴레이 공익캠페인 「NO Weak Challenge」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참여는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의 지목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청소년이 마약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NO Weak Challenge」는 '약하다(Weak)'와 '약(藥)'의 의미를 활용해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으로, 공단은 "NO WEAK, 약(藥)하지 않은 우리가 만드는 마약 없는 미래"라는 슬로건과 함께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캠페인 참여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공유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공단은 이번 캠페인을 일회성 참여에 그치지 않고 예방문화 확산으로 이어가기 위해 다음 참여기관으로 평창관광문화재단을 지목하며 지역사회 전반으로 메시지를 확산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이어진 청소년 범죄예방 캠페인

9월 22일에는 평창고등학교 후문에서 평창경찰서와 평창군 공공기관 ESG경영 협의체 참여기관이 함께한 청소년 범죄예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공단을 비롯한 관계기관 관계자 총 20여 명이 참여해 지역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힘을 모았습니다.





현장에서는 평창고등학교 학생 약 160명을 대상으로 마약·사이버도박·학교폭력 등 주요 범죄유형별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홍보 전단지와 예방물품을 배부했습니다. 특히 음료 등에 포함된 일부 약물 성분을 색상 변화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검출용 홍보물품을 현장에서 직접 시연하고, 약물범죄 위험상황과 자기보호 행동요령을 함께 안내해 체험형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였습니다.

이번 활동은 챌린지를 통해 알린 예방 메시지를 실제 학교현장으로 확장한 사례로, 캠페인 참여에서 현장 실천까지 이어지는 청소년 안전문화 확산의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함께하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평창형 금요시간적금제 시범운영

공단은 직원 중심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제3기 주니어보드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한 「평창형 금요시간적금제」를 시범운영했습니다. 직원의 아이디어를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보다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도입니다.

기존 시차출퇴근제가 하루의 출·퇴근 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방식이라면, 평창형 금요시간적금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시간을 조금씩 '적립'해 금요일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월~목요일 08:30~18:00, 금요일 9:00~16:00으로 근무하되, 전체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유지하도록 운영했습니다.

제도는 회차별 2주 단위로 운영했으며, 주간근무 일반직과 업무공백이 없는 시설 근무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금요일 오후 업무공백이나 민원·비상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부서별로 참여자를 선정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직원 의견과 근태·업무공백 여부 등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이번 시범운영은 단순히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 효율성과 직원의 삶의 균형을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근무방식을 직접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직원의 제안이 제도 변화로 이어지고, 더 나은 근무환경이 더 좋은 공공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거제시 집중호우 피해복구 자원봉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2026년 9월 3일부터 4일까지 특별재난지역인 경상남도 거제시를 찾아 피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사장을 포함한 공단 임직원 9명으로 구성된 '희망새미 봉사단'이 둔덕면 유지마을 피해농가를 찾아 현장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봉사단은 중장비 접근이 어려워 복구가 지연되고 있던 농가에서 수해 폐기물 처리, 침수 농경지의 토사·잔해물 제거, 농자재 정리와 주변 환경정비 등을 진행했습니다. 작업 전 안전교육과 보호장구 착용 등 현장 안전관리에도 힘써 전 일정을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피해복구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회복까지 함께 응원하는 '복구-상생 연계형' 사회공헌활동으로 추진했습니다. 1박 2일 일정 동안 거제·통영 지역의 숙박과 식사를 이용하고,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통영 서호시장을 찾아 중식과 장보기를 진행하며 침체된 지역상권에 작은 힘을 보탰습니다.

평창을 넘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아픔을 나누고, 복구의 손길과 지역상생의 온기를 함께 전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손을 내밀며 지역과 지역을 잇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2026 평창군 스마트 청렴 골든벨 참여



공단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스마트 청렴 골든벨」에 참여했습니다. 퀴즈를 풀며 청렴 관련 제도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돼 직원들의 관심과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이번 골든벨에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제도, 공직자 행동기준 등 업무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주요 반부패 제도를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단계별 퀴즈와 심화문항을 통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청렴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공단의 남◯언 대리가 1위, 김◯욱 대리가 2위를 차지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공단 직원들이 나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청렴제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적극적인 교육 참여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번 골든벨을 통해 평창군, 평창군농업기술센터,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함께 기관 간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청렴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통합정비반 운영





공단은 시설물 유지관리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시설물관리 통합정비반'을 신설·운영했습니다. 기존에는 16개 관리시설의 건축·전기·위생 등 소규모 유지보수를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통합정비반 운영을 통해 공단 전문인력이 직접 점검하고 수선하는 직영 관리체계를 강화했습니다.

7·8월 두 달간 시설을 순회하며 약 60건의 보수 작업을 직접 기획·시공했습니다. 평창장례식장 천장 흡음텍스 보수, 캠핑장과 공설묘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평창자연휴양림 가로등 및 대관령휴게소 분전함 전기안전 개선, 주요 시설 위생설비 부속 교체 등 다양한 현장 정비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운영을 통해 단 두 달간 대행사업비 약 2,200만 원을 절감했으며, 전문인력이 현장에 즉시 출동하는 체계를 구축해 고객 불편사항과 시설 고장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합정비반 운영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너어 공단의 자체 시설관리 역량을 높이고, 신속한 현장 대응과 예방 중심의 유지관리 체계를 강화한 경영혁신 사례입니다.

이용객을 위한 작은 변화, 더 나은 시설

안심하고 머무는 공간, 꼼꼼한 방역부터

여름철 해충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계방산오토캠핑장과 평창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자체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객실 내부와 침구류, 가구 하단 등 해충 발생 우려 구역을 중심으로 피톤치드 성분의 저독성 방역약품을 활용해 시설 직원이 직접 방역을 진행했습니다.

자체방역을 통해 상시 방역체계를 마련하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지속적인 관리 기반도 갖췄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방역과 예방활동을 이어가며 이용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숙박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무더위는 잠시 잊고, 미로분수에서 시원하게

기록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고 방문객에게 시원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평창에코랜드 미로분수를 기존 주말 운영에서 매일 운영으로 확대했습니다. 폭염이 집중되는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 가동해 무더위에 지친 주민과 관광객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로분수는 물줄기 사이를 직접 걸으며 즐길 수 있는 낙하식 수막 형태의 체험형 분수로, 특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보다 시원하고 즐겁게 평창에코랜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시설 운영에 힘썼습니다.



시장 나들이의 작은 불편, 주차타워 화장실로 덜었어요

진부야시장 운영 기간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7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화장실을 추가 개방했습니다. 매주 금·토요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 자동개폐 시간을 조정해 운영했습니다.



야시장 인근 공용화장실 부족으로 예상되는 이용 불편과 혼잡을 줄이고, 상인회와 협력해 청소와 환경정비도 함께 관리했습니다. 작은 편의 개선을 통해 진부 야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보다 쾌적하게 전통시장을 즐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평창 햅쌀로 마음을 나눠요

추석을 맞아 공단 숙박시설을 찾아주신 이용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농산물을 알리기 위해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추석명절 햅쌀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계방산오토캠핑장, 평창국민여가캠핑장, 평창자연휴양림 등 3개 시설에서 평창 햅쌀 총 300개를 이용객에게 전달했습니다. 가족 단위 이용객을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풍성한 명절의 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6년 연속 인정받은 캠핑명소, 계방산오토캠핑장



2026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숙박 부문 6년 연속 우수분야 선정



평창군 용평면 해발 700m에 위치한 계방산오토캠핑장이 「2026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숙박 부문에서 6년 연속 우수분야에 선정됐습니다. 꾸준히 이용객의 선택을 받아온 계방산오토캠핑장이 다시 한 번 평창의 대표적인 캠핑명소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입니다.

계방산오토캠핑장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시원한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밤에는 맑고 깨끗한 하늘 아래 별을 감상할 수 있어 캠핑과 휴식을 즐기려는 전국 이용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박사이트, 카라반사이트, 데크사이트, 펜션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캠핑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용객이 취향과 여행 방식에 맞춰 공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시설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지며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캠핑객까지 폭넓게 찾는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6년 연속 선정이라는 기록은 계방산오토캠핑장을 꾸준히 찾아주신 이용객들의 관심과 성원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이용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시 찾고 싶은 평창의 캠핑명소로 이어가겠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만난 특별한 치유 2026 평창치유의숲 달빛 축제



평창치유의숲은 낮과는 또 다른 숲의 매력을 선보이기 위해 9월 4일부터 18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3회에 걸쳐 「2026 평창치유의숲 달빛 축제 - 소나무 숲, 달빛에 물들다」를 운영했습니다. 무장애 데크로드와 치유정원을 중심으로 야간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해 총 48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청사초롱을 활용한 야간 숲길 걷기를 비롯해 달빛과 소나무숲, 반딧불이 등 평창치유의숲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특별하나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낮 시간대의 숲 체험과는 다른 차분하고 감성적인 분위기 속에서 방문객들이 자연을 느끼고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당귀 족욕과 달빛 싱잉볼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참가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계절과 시간에 따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산림치유 콘텐츠를 앞으로도 많이 선보일 계획입니다. 달빛 아래 소나무숲에서 경험한 특별한 쉼이 참가자들에게 오래 기억되는 치유의 순간으로 남기를 바랍니다.